

P-19

마약성 진통제에 의한 통증관리의 만족도와 효율적 관리에 대한 약사의 임상업무 고찰

장유정, 유봉규¹, 김정애¹

영남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, ¹영남대학교 약학대학

최근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 대상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말기 암 환자의 경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. 그러나 환자 중 일부는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조절이 충분히 되지 않는 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, 환자 개인의 통증강도 및 발생양상에 적합한 진통제의 종류 및 용량 설정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. 이에 본 연구는 마약성 진통제를 이용한 통증관리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약사가 담당해야 할 임상적 역할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. 2007년 전반기 (4월 23일 - 5월 26일) 및 하반기 (9월 20일 - 10월 19일)의 두 기간에 걸쳐 대구광역시 소재 한 대학병원의 외래약국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 받은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. 연구결과, 마약성 진통제 투약 전체 환자군을 암 환자군과 암 이외의 질환자 별로 주로 처방되는 마약성 진통제의 종류와 투약기간, 통증 관리의 만족도, 복용 방법, 부작용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. 암 환자에서는 단일성분의 지속성 마약성 진통제가 가장 많이 투약되었고, 암 이외의 질환자에서는 복합제제가 가장 많이 투약되었다. 투약기간에서 암 환자군의 경우에는 1개월 미만에서 1년 이상까지 고르게 분포하였으나, 암 이외의 질환자에서는 55.5%가 '1개월~6개월'로 나타났다. 통증관리의 만족도에 있어서 57.5%의 환자는 만족하고 있었고 42.5%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두 질환군에 있어 큰 차이는 없었다. 암 환자군에서의 부작용은 졸음 34.6%, 변비 30.7%, 오심 및 구토 19.2% 순이었으며, 암 이외의 질환자에서는 '부작용이 없다'는 대답이 50%로 나타났다. 진통제 복용방법에서 암 환자군은 50%가 규칙적으로 복용하면서 필요시 추가로 복용하고 있었으며, 암 이외의 질환자는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환자가 38.8%, 필요시에만 복용하는 환자 33.3%, 규칙적으로 복용하면서 필요시 추가로 복용하는 환자 27.7%로 나타났다. 통증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환자는 전체의 65%였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의사에게 교육을 받았고, 약사로부터 받은 환자는 없었다. 위 결과로 볼 때 격심한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효율적인 통증관리를 위하여 환자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특히 이 분야에 대한 약사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.